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산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불교 소재 음반들이 잇달아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명상 음악으로 더위·번뇌 '썉'

‘정선 두이봉 계곡의 물 쏟아지는 소리, 나무 한 짝 놓고 숨 고르며 부르는 노랫소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듣는 부석사 종경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옆 사람 휴대전화 소리, 지하철 안내 방송 소음에 진저리난 사람이라면 마음 한구석에서나마 그리워할 만한 소리들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사와 자연의 소리를 음반으로 옮긴 명상음반들이 잇달아 출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리아투트의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 ‘공(空)-소리로 떠나는 그곳, 산사 ‘봄날의 소리’, 지월 스님의 ‘천장경’ 등이다.

이중 두 개의 음반으로 구성된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은 산사의 사계와 산사의 하루를 소리로 담아내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음반인 ‘산사의 사계’에는 영주 부석사의 낙엽발는 소리, 곡성 도립사 계곡의 물소리, 순천 선암사의 대나무 숲바람 소리, 정선 정암사의 여름 새소리 등이 실려 있다.

또 ‘산사의 하루’ 편에서는 순천 송광사의 범종 소리와 범고, 도량석 소리를 녹음했다. 역시 두 장의 CD를 발매한 ‘공’도 장엄한 예불로 유명한 송광사와 해인사, 운문사의 저녁예불 현장을 실황 녹음했다. 여기에 해남

웰빙 바람 타고 불교 소재 음반 붐몰 도립사 물소리, 송광사 범종 등 다양 신 감각 편집으로 기존의 단순함 탈피 클래식부분 상위 기록하며 인기몰이

대흥사 석운 스님의 <천수경> 독경과 수덕사의 새벽 종소리, 강진 무위사의 사시예불 소리를 편집해 넣었다.

이들 음반들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더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음반 매장 관계자들은 귀뜸한다. 산사를 소재로 한 명상 음악을 들으면 눈앞에 시원스런 산사의 모습이 펼쳐져 더위와 번뇌까지 한꺼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효과가 구매자들을 강하게 유혹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웰빙시대’를 맞아 명상 관련 발매한 ‘공’도 장엄한 예불로 유명한 송광사와 해인사, 운문사의 저녁예불 현장을 실황 녹음했다. 여기에 해남

실제로 ‘산사에서의 고요한 명상’ 지혜의 선율을 담은 앨범 ‘카루나 (Karuṇā)’도 명상 음반의 인기로 힘입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명상음악가 김정만씨는 “과거 불교 소재의 명상음악이 국악 중심의 선율이나 독경에만 의존하는 등 단조로워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음반들은 산사의 자연이나 예불 현장 등 다양한 효과음을 편집해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산사의 분위기를 맛보고 싶은 일반인들의 귀를 자극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음반 매장에서 만난 이수곤(32·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씨도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스님들의 독경이나 산사의 효과음을 녹음한 음반을 사서 들었다”며 “직장과 가정일로 스트레스가 쌓일때 더위에 지쳤을 때 시원한 산사를 소재로 한 명상 음반을 자주 듣게 된다”고 구매 이유를 밝혀 김 씨의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260m 초대형 달마 ‘와’

“달마도에서 뿔어져 나오는 좋은 기운이 지하철 참사로 상차받은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禪)화가인 석주 이종철 화백(59)이 6월 4일 대구시에 초대형 달마도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달마도는 폭이 1.3m로 길이가 무려 260m나 되는 한지

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2173명의 역동적인

이종철 화백 6월 4일 대구시에 기증

지하철 참사·유니버시아대회 기념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년도(2003)에 대회 참가국수(1백70개국)를 더한 것이다.

긴 종이(20m×60cm)에는 2천3개의 달마를 그리고 이보다 짧은 종이(10m×1m)에는 1백70개의 달마를 그렸다. 작업기간만 6개월이 넘었다. 일단 지난해 6월 열린 대구국제유니버시아드 기간에 대구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전시회가 끝난 뒤 국내 전화 수집가들이 높은 작품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평소 의미있는 일에 그림이 사용될까 발원한 이 화백은 대구시

가 최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하기로 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던 대구 시민을 위로하고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대형 달마도를 그렸지요. 이전 대구 시민이 이 그림의 주인입니다.”

1945년 일본 야마구치(山口市)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한국에 건너온 뒤 대전에서 정착한 이 화

백은 분다 사진작가였다. 20여년간 카메라를 들고 살다가 1980년대 산사에서 수행한 인연으로 90년초 불국사 월산 스님에게서 ‘자봉’이란 불명을 받고 붓을 잡기 시작했다.

현재는 작품 생활 틈틈이 대구 동화사와 공주 영평사에 다니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선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화백은 지금까지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시연전을 개최했으며, 7월초 서울에서 ‘도자기에 새긴 달마’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초대형 달마도 앞에서 도자기에 달마를 그리고 있는 이종철 화백.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구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무 동참하시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을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명숙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유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도량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동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현 할장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9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